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응급의료체계 ‘단디’ 준비”

응급의료 분야 자문위원 7명 위촉

경상북도는 19일 APEC 준비지원단 회의실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응급의료분야 자문위원 위촉식’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실행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정주호 동국대 경주병원장과 최대해 대한재난의학회 이사장, 박찬용 서울대병원 외상외과 과장 등 7명이다.

이들은 응급의료 분야 최고 전문가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의료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주호 동국대 경주병원장은 “경북도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역대 최고의 응급의료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APEC 행사를 이끌겠다”고 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실행계획 연구용역 보고회에서는 APEC 준비기획단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투입 의료진, 증상별 응급환자 이송 매뉴얼 등과 관련한 다각적인 의료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응급의료지원체계를 위한 세부 과제를 하나하나 구체화하는 등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영민 기자 yun1011@imaeil.com

경주시 'APEC 리허설' 고위관리회의 연다



▲ 최근 경북 경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경주시와 대구지방식약청 소속 식음료 안전관리 점검반이 SOM1을 대비해 위생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 18일 경북 안동시 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SOM1 준비 회의에서 AI 종합 안내 서비스 기기가 시연되고 있다. 경북도 제공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SOM1 및 실무회의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등지에서 진행된다. SOM은 APEC 정상회의에서 다를 의제를 논의하는 회의다.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 앞서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 협의 및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다.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SOM을 진행해 주요 의제 등을 설정한다. 비공식 SOM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렸고 경주 SOM1에 이어 5월과 7월에 제주, 인천에서 SOM2, SOM3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SOM1 기간 동안 경주에서는 무역투자위원회를 비롯해 경제기술협력은 영위원회,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아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체를 중심으로 100여 차례 회의가 열린다. 이를 위해 APEC 회원국 21개국에서 대표단 20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8000여 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APEC 정상회의를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경북도와 경주시는 SOM1을 최적의 리허설 기회로 보고 있다. 이번에 SOM1을 성공적으로 열어 개

서울 비공식 회의 이어 2번째 개최
24일부터 21개국 주요 의제 협의
AI 번역 솔루션-안내 로봇 등 운영
식음료 시설 점검 등 준비 만전

최지 선정 당시 일각에서 제기했던 인프라 부족 등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겠다는 목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성공개최추진위원회와 범시민도민지원협의회를 출범한 것에 이어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하는 등 APEC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8일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종합 안내 서비스 기기를 선보였다. SOM1에서 AI 휴먼 아바타가 탑재된 실시간 답변 서비스 키오스크와 대화형 AI 다국어 통번역 솔루션을 운영한다. 두 기종 모두 APEC 21개 회원국의 언어를 지원하고 이용자가 질문하는 언어로 답변한다. 또 이동형 안내 로봇도 함께 배치해 대표단에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SOM1 기간 각국 대표단에 제공할 식음료 안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 경북도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식음료

시설 사전 점검 및 식품 안전 사고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북도,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분야별 과제를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신라 천년 고도(古都)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경주시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결정했다. 함께 유치 경쟁을 펼쳤던 인천시와 제주도에서는 고위 관리 및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분산 개최하기로 했다. 경주에서는 이번에 SOM1을 시작으로 6월 문화분야 장관급 고위급 회담에 이어 10월 말 대망의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APEC 정상회의 때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정부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는 1조 9000억 원, 지역은 1조 원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APEC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뜻한 미소와 친절, 질서로 경주를 쾌적하고 안전한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첨단산업과학도시로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APEC서막 올린다] ① 고위관리회의의 내주 시작...막바지 손님맞이 준비

[이승형]

회원국 대표단 2천여명 경주 방문..."첫 사전회의의 성공 가을 정상회의까지"
회의장·숙소·교통 등 지원 심혈..."편안하게 회의 집중할 수 있게"

[※편집자 주 =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사전회의인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실무회의가 오는 24일 경주에서 14일간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이 기간 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 등 2천여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고위관리회의가 정상회의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회의, 숙소, 수송 등 준비 상황을 다룬 기사를 두 편 송고합니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올해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서막을 알리는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24~3.9일) 준비가 마무리 단계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고위관리회의의 성공을 정상회의까지 이어간다는 각오로 막바지 손님맞이 채비에 여념이 없다.

각국 대표단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수송, 숙박 등을 직접 지원한다.

20일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등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APEC 정상회의의 제1차 고위관리회의가 열린다.

이 기간 28개 회의체에서 총 100여차례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APEC 회원국 대표단 등 약 2천여명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 고위관리회의는 정상회의 개최 전 경주에서 열리는 첫 번째 대규모 사전회의다. 정상회의 의제 전반을 다루며 실질적 협의를 끌어내는 협의체로 정상회의 사전 준비나 여행연습의 성격도 지닌다.

도와 시는 회의가 경주와 경북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대표단들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게 회의실 인프라 구축과 수송, 숙박, 의료 지원 등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야경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표단 회의·이동 지원 '만전'

APEC 회의는 문서 없는 회의를 표방하므로 회의장에서 직접 송출되는 회의자료에 대한 화상도가 중요하다. 이에 영상 프로젝터를 국제회의에 적합한 최고 수준의 영상시설로 교체해 대표단들이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참가자들의 입·출국을 비롯한 회의 참석 편의, 저녁 시간대 개인 활동 보장을 위해 효율적이고 꼼꼼한 교통계획도 수립했다.

입출국을 위한 수송거점을 김해공항과 경주역(시외버스터미널 경유)으로 지정하고 수송거점에서 출발해 보문관광단지(숙소·회의장)에 도착하는 교통편 배차 간격은 30분, 출국을 위해 숙소에서 수송거점으로 가는 배차간격은 1시간 단위로 설정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교통편을 운행한다.

숙소와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행한다. 기본 배차간격은 30분, 회의 시작·종료 시간대는 15분이다. 저녁 시간대 보문관광단지와 황리단길로 오가는 셔틀도 3회 운행한다.

수송상황실을 설치해 원활한 현장 대응과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지원을 할 계획이다.

◇ 편안하고 안전하게...숙박·의료 등 준비, 자원봉사자도 힘 보내

대표단이 묵을 호텔 5곳을 지정하고 여기에는 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는 전용 데스크를 설치해 통역, 교통 안내, 관광지 소개, 추천 식당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의장 안에는 의무실을 설치하고 영어가 능통한 의사 1명과 일반 간호사 1명이 상주하도록 한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2대는 상시 대기하고 동국대 경주병원, 포항성모병원, 울산대병원 등
전담 협력병원도 10개 운영한다.

자원봉사자들도 힘을 보탠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202명이 수송, 관광,
숙박 안내, 행사장 운영, 각종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을 지원한다.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결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도는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신라의 멋과 문화를 담기 위해 신라 복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와 경북, 대한민국의 품격과 저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인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위관리회의부터 정상회의까지 손님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관련기사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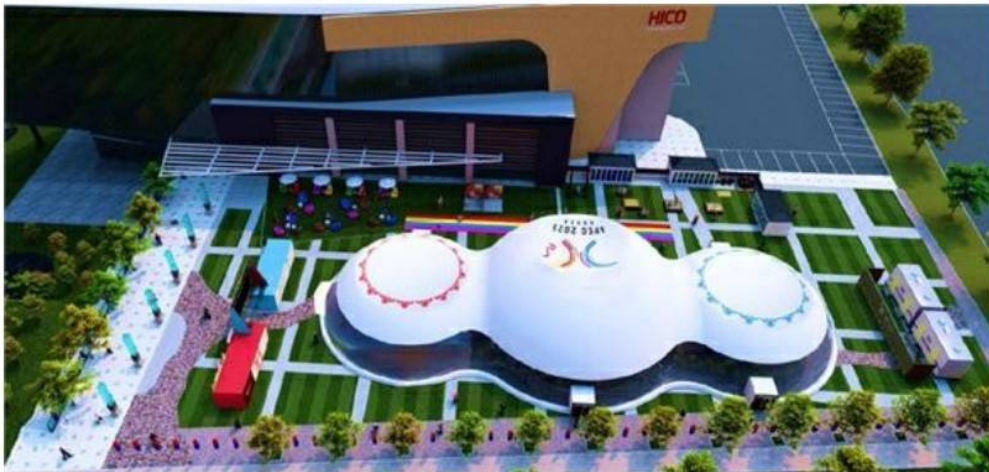


[APEC서막 올린다] ② 고위관리회의, 한국 전통의 멋·아름 다움 선사(끝)

[이승형]

'에어돔' 야외 전시장, '황리단길 스토어' 등 설치...다양한 테마 관광코스
오징어게임 모티브 전통놀이 체험 공간도 꾸며..."순간순간 추억 되게"

[※편집자 주 =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사전회의인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실무회의가 오는 24일 경주에서 14일간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이 기간 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 등 2천여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고위관리회의가 정상회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회의, 숙소, 수송 등 준비 상황을 다룬 기사를 두 편 송고합니다.]



에어돔 등 야외 전시장 조감도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주에서의 경험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한국의 멋과 전통을 경험하는 기회를 선사하겠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오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등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다는 각오다.

경주와 경북만의 특색있는 멋을 선보여 감동을 안겨주고 첨단산업과 디지털 강국의 이미지도 심어줄 계획이다.

◇ 화백컨벤션센터 등 한국적인 전통미 살린 회의장

화백컨벤션센터에 세련되고 우아한 한국적인 전통미를 살린 인테리어와 LED 월을 융합적으로 설계한 '경북-경주 홍보관'을 설치해 경주뿐 아니라 경북 21개 시군 문화와 전통, 관광, 기념품을 세계에 알린다.

야외전시장 투명 에어돔에는 '황리단길 감성 스토어', 'K-뷰티 존' '청년 기업 존'을 개설한다.

경주의 핫 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황리단길 감성 스토어에서는 십원빵, 커

피, 꽃차, 약과 등 지역특산품도 선보인다.

청년 작가들의 기념품 판매와 캐리커처·복주머니·경주 향수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마련한다.

K-뷰티 존에서는 도내 우수 뷰티 기업 제품(화장품·디바이스 등)을 홍보하고 메이크업 쇼를 진행한다.

HICO 3층에는 철강 신화를 간직한 경북의 이미지와 예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스틸아트 전시관을 설치, 조선 회화 등을 스틸아트와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1층 오찬장에는 신라 유물과 건축물의 화려함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대형 LED를 설치한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존'과 한국의 김밥과 떡볶이를 시식하는 'K-스트리트 푸드 존'을 준비한다.



경주 월정교 야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 한복 등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오징어게임 모티브 놀이공간도

회의장 밖 야외전시장 투명 에어돔과 인근에는 각종 공연과 전통문화 행사로 손님을 맞는다. 한복 패션쇼, 태권도, 서커스, 하회별신굿 등 다양한 공연을 기획 중이다.

또 한옥(한옥 제작 과정 소개·대청마루와 디딤돌 설치), 한복(한복과 장신구 전시·옷감 체험), 한식(전통주 전시·종가 음식 소개), 한지(한지 공예품 전시), 한글(한글 자석 월 체험·훈민정음 사료 전시)을 테마로 '5한(韓)마당'을 조성한다. 오징어게임을 모티브로 한 전통 놀이 체험 공간도 꾸민다.

회의장 인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에서는 신라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과 신라 화랑이 도망간 도깨비를 잡기 위해 시간 이동하며 벌이는 해프닝을 다룬 년버벌 퍼포먼스를 공연한다.

다양한 미디어 체험과 신라 고취대 및 지역 아티스트 공연, 연날리기 체험 등 행사도 회의 기간 이어진다.

◇ 신라 고도 경주 역사·문화 알린다

천년 신라 고도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경주를 눈으로 담을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과 HICO에서 현장 접수로 운영한다.

석굴암·불국사를 둘러보는 세계문화유산 코스, 경주박물관·첨성대·대릉원을 잇는 역사 유적 월성지구 코스, 경주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첨성대·월정교·동궁과 월지를 잇는 신라의 달밤 코스, 자연 생태 코스, 산업시찰 코스로 경주를 각인시킨다.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방자치단체장 주치의 환영 만찬에는 지역 전통주를 내놓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표단들이 경주에서 회의하고 관광하고 맛보고 체험한 순간순간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준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관련기사 바로가기 